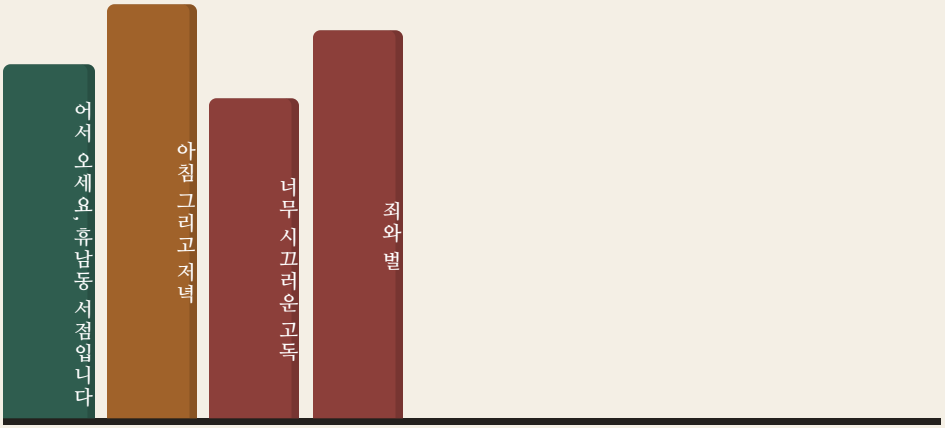
생각의 지도 01 ·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뿐인 삶,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덜 벌더라도, 나답게 사는 시간, 마침표를 따라 읽은 삶과 죽음, 35년의 압축기 앞에서, 그는 정말 반성했을까. 책미사가 4번의 모임에서 이 질문을 두고 나눈 이야기를 한 권에 묶었습니다.



책 4권 · 질문 11개 · 2022.5.7 ~ 2026.10.17

무료 · 함께 나눠 주세요

4번의 모임, 하나의 질문

모임 날짜 순서로 놓았습니다. 후기 제목이 곧 그날 붙든 물음입니다.

01 덜 벌더라도, 나답게 사는 시간 3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 2022.5.7 지정독서

02 마침표를 따라 읽은 삶과 죽음 4
『아침 그리고 저녁』 · 2023.12.8 오프모임

03 35년의 압축기 앞에서 5
『너무 시끄러운 고독』 · 2026.9.12 문학산책

04 그는 정말 반성했을까 6
『죄와 벌』 · 2026.10.17 문학산책

이렇게 써 보세요. 혼자라면 쪽마다 맨 아래 질문 하나에 세 줄로 답해 보기. 여럿이라면 질문 하나를 골라 20분 이야기하기. 독서모임 첫 질문으로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지정독서 · 2022년 5월 7일

덜 벌더라도, 나답게 사는 시간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황보름의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로 5월 정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영주와 민준이 저마다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에서 시작해 삶의 균형, 명상, 마음을 전하는 법까지, 토요일 아침 두 시간이 넘게 이어진 따뜻한 모임이었습니다.

소설은 왜 필요할까	내 정서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로
영주와 민준	덜 벌더라도 나를 찾는 삶
균형과 루틴	하나라도 더, 그러나 지치지 않게
생각을 쉬게 하는 것	명상, 그리고 화가 날 때의 거리 두기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나는 왜 소설과 멀어졌다가, 왜 다시 읽게 되었을까?
2. 돈을 덜 벌더라도 시간이 여유로운 삶, 나는 고를 수 있을까?
3. 생각이 멈추지 않을 때, 나는 무엇으로 마음을 쉬게 할까?



오프모임 · 2023년 12월 8일

마침표를 따라 읽은 삶과 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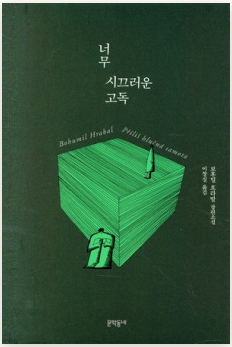
욘 포세 『아침 그리고 저녁』

2023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욘 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을 들고 12월 금요일 오후에 직접 만났습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따라 읽는 법에서 시작해 태어남의 긴장,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 늙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마중 나와 줄 사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쉼표와 마침표	두 번 읽어야 보이는 문장
태어남	첫 장의 긴장
죽음을 준비하는 법	남의 죽음을 내 것으로
마중	마지막에 누가 나와 줄까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마침표는 왜 하필 거기에 찍혔을까?
2.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일까?
3. 마지막 날, 누가 마중 나와 주면 좋을까?



문학산책 · 2026년 9월 12일

35년의 압축기 앞에서

보후밀 흐라발 『너무 시끄러운 고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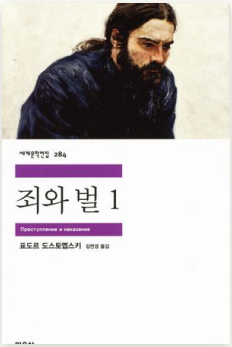
프라하 지하실에서 35년째 폐지를 압축하며 책을 건져 읽는 한탸. 짧은 소설을 두고 고독, 쓸모, 그리고 밖에서 밀려오는 변화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펼친 책	예전엔 중간에 덮었는데, 이번엔 보였다
칙칙하지 않은 고전	늙어서 한 번쯤 살아 보고 싶은 삶
혼자 있고 싶다는 말	고독은 피하는 걸까, 지키는 걸까
거대한 압축기	변화는 늘 바깥에서 온다

> "변화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온다. 충격이 한 번 오면 바꾸지 않을 수 없다."
>
> 그날 모임에서 나온 말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고독은 피하는 걸까, 지키는 걸까?
2. 예전엔 중간에 덮은 책이, 다시 펼치면 왜 보일까?



문학산책 · 2026년 10월 17일

그는 정말 반성했을까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천 쪽이 넘는 두 권을 들고 모였습니다. 이날 가장 오래 붙든 질문은 하나였어요. 살인 뒤 라스콜니코프가 느낀 건 정말 죄책감이었을까.

소냐	초월적인 희생일까, 환경이 만든 희생일까
3부 심리전	포르피리와 라스콜니코프는 데스노트의 L과 라이토
죄책감?	리자베타를 애도하는 문장이 한 줄도 없다
반성했을까	대부분 “아니다”, 1년에서 끊긴 열린 결말

> "그는 새로운 삶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을 사기 위해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모를 정도였다."
>
> 그날의 한 줄 · 498쪽

이 책으로 던질 질문

1. 소냐의 희생은 초월적인 것일까, 환경이 만든 것일까?
2. 살인 뒤에 라스콜니코프가 느낀 감정, 정말 죄책감일까?
3. 라스콜니코프는 끝내 반성했을까?

같은 질문, 다른 책

성공도 실패도 아닌 한 사람의 생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무엇이 삶을 채우는지 조금씩 보입니다. 소설 속 인물의 마지막 장면 앞에서 우리는 자기 삶을 다시 셈해 봅니다.

이 질문의 다른 책

스토너 · 노인과 바다 외. 홈페이지 생각의 지도 01에서 모두 볼 수 있어요.

후기 전문과 진행 자료

책마다 홈페이지 책 페이지에 후기 전문, 진행 자료, 그날의 한 줄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주로 토요일 밤 9시, 줌에서 만나고 가끔은 직접 만납니다. 완독 못 해도, 듣기만 하는 청강도 괜찮아요. 첫 참여는 무료, 그다음부터 모임당 5,000원.

espada4897.github.io/espada/map.html#m1